

SAT '홈버전' 도입 계획 백지화

SAT의 '홈 버전(home version)' 도입 시도가 중단됐다.

3일 '한국경제'에 따르면 SAT를 주관하는 칼리지보드는 전날 집 등 외부에서 SAT를 응시할 수 있는 디지털 버전 출시를 미루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칼리지보드는 지난달 코로나19 여파를 반영해 SAT 홈 버전을 올해 내놓겠다고 발표했는데, 한달 사이에 결정을 뒤바꿨다.

칼리지보드의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요인은 모든 응시자가 공정하게 SAT 홈 버전을 치르기 어렵다는 비판 때문이다. 칼리지보드는 "3시간 동안 인터넷이 원활하게 연결돼야 하는데, 모든 응시자에게 가능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칼리지보드가 주관하는 또다른 시험인 AP(Advanced Placement)의 홈 버전은 이미 논란을 일으켰다. 지난달 시행된 AP 홈 버전에 응시한 학생 중 7%가 마무리를 하지 못했다. 칼리지보드는 응시자 중 1%가 인터넷 환경 문제로 답안지를 제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고 분석했다. 응시자 및 학부모, 시민단체는 칼리지보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칼리지보드 측은 코로나19로 상반기에 SAT를 치르지 못한 학생들이 하반기 오프라인 시험에 몰려 사회적 거리두기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며, 필요한 경우 오프라인 시험을 추가하겠다고 발표했다. 한편 SAT와 더불어 미국의 양대 대입시험으로 꼽히는 ACT는 올 가을에 홈 버전을 선보일 계획이다.

그동안 SAT와 ACT는 응시자의 가정형편이 좋고 백인일수록 고득점으로 이어지며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런 비판은 코로나19로 가속화했고 여러 미국 대학들은 SAT와 ACT 점수를 입학전형에 선택사항으로 변경하거나 활용을 중단하고 있다. UC버클리 등 캘리포니아대학(UC)계 소속 대학들을 비롯해 많은 대학들이 올해 전형에서 SAT와 ACT 점수를 반영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리버럴 아츠 칼리지? 그게 뭔데?

하버드, 스탠퍼드, 스린스톤, 예일, UC버클리……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미국의 명문 대학이다. 그렇다면 윌리엄스, 스와츠모어, 보도인, 포모나, 하비머드…… 이런 대학들은? 지금 이 기사를 읽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도 낯설어하는 독자들도 적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이들 대학은 미국의 최상위권 대학으로 아이비리그가 부럽지 않은 리버럴 아츠 칼리지(Liberal arts college)들이다.

'미래교육연구소' (소장 이강렬)에 따르면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미국만 있는 독특한 대학 형태이다. 한마디로 학부 중심대학으로 가르치는 것에 집중하는 대학이다. 대학의 기능은 첫째로 연구 기능이 있고 두 번째 학문 전수 기능 즉 가르치는 기능이 있다. 연구는 주로 대학원의 석박사 과정에 이뤄지고 가르치는 기능은 학부부터 대학원까지 있다. 대부분 연구중심대학의 경우 학부과정보다 대학원 과정에 중점을 둔다.

반면 학부 중심의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오로지 가르치는 것에 중점을 둔 미국만의 대학 시스템이다. 우선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대학의 크기에서 그 규모가 매우 작다. 하버드, 프린스턴 같은 대학원 중심의 대학들 정원이 7,000~8,000명, 주립의 대학원 중심 대학의 경우 3~4만 명 규모다. 반면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경우 3,000명 미만이다.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서는 창의적 사고와 창의적 글 쓰기, 그리고 문학, 철학, 역사 등 기본적인 소양들을 강조한다. 즉 기능적인 학문의 습득보다는 기초를 튼튼히 하는데 중점을 둔다. 따라서 대학원 진학 시 매우 유리하고 또 대학원 진학률이 매우 높다.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가장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교수와 학생들의 인간관계 형성이다. 연구중심 대학들에서 학생들이 정교수들과 접촉할 기회는 거의 없다.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경우 클래스 당 학생 수가 작아서 수업을 밀도 있게 진행할 수 있다. 1, 2학년의 교양과목의 경우 아무리 많아도 30명 미만이고 전공으로 들어가면 10명 이내 클래스가 많다. 재학생 수가 대학원 중심대학보다 훨씬 적은 관계로 정교수가 학부생들을 직접 가르치고 학생들이 원할 때 교수와 면담도 할 수 있고 필요한 조언도 받을 수 있다. 캠퍼스 내 교수 사무실에서 교수와 학생이 가족처럼 농담을 주고받는 광경도 흔히 목격된다. 명성만 그럴듯하지 학생 개개인에게 충분한 관심을 두지 않는 종합대학과는 완전히 다른 환경이라고 할 수 있다.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는 대학원이 없거나 있어



▲ 명문 리버럴 아츠 칼리지인 클레어몬트 포모나칼리지의 Carnegie Hall 전경. 사진=포모나칼리지

도 매우 제한적이다. 박사과정 코스는 개설돼 있지 않다.

교수 대 학생 비율은 명문 대학을 평가하는 주요 요소 가운데 하나다. 명문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경우 1:10 미만인 대부분이다. 또한 리버럴 아츠 칼리지는 대부분 학비가 비싼 사립대학들이다. 그렇다면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 다니는 학생들의 진로는 어떻게?

리버럴 아츠 칼리지에서 '교양과목' 중심으로 배워서 졸업 후 취업에 많은 장애가 있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으나 이는 실정을 잘 몰라서 하는 생각이다.

리버럴 아츠 칼리지 졸업생들의 진로는 크게 대학원 진학과 취업이다. 우선 대학원을 진학하려면, 그것도 명문 대학원을 진학하려면 명문 리버럴 아츠 칼리지로 진학하는 것이 더 유리하다. 리버럴 아츠 칼리지 학생들의 대학원 진학률은 연구 중심 대학 학생들에 비해 매우 높다. 그것은 수업의 질과 교수의 추천서(Recommendation) 영향이 크다.

리버럴 아츠 칼리지의 특성은 이렇게 종합해 볼 수 있다.

- 1) 학부에 포커스를 맞춘다. 대학원이 없거나 있어도 매우 제한적이다.
- 2) 학교 규모가 매우 작아서 학생 수가 1,000~2,000명 정도이다.
- 3) 사고를 넓혀주는 커리큘럼을 갖고 있다. 학부에서는 세분화된 깊은 전공으로 들어가지 않는다.
- 4) 교수는 학생을 가르치는 데 전념한다. 전 과목을 조교 없이 교수가 직접 가르친다.
- 5) 교수 학생 간의 교류와 교감이 깊다.
- 6) 4년간 학생들은 거의 대부분 기숙사 생활을 한다.

www.isemusa.com

세금보고 미국 전 지역 서비스

PREMIER TAX GROUP

- 세금보고
- 법인설립
- 해외자산보고
- 연체세금 해결
- 세무감사대행
- 상속, 증여세금보고



대표 세무사 이세진(Skyler S. Lee)
공인세무사 (E.A.)
(전) 한국 삼일회계법인 / PWC 근무

Office 714.530.0030
714.345.0762

5730 Beach Blvd, Ste. 202 ~ 203, Buena Park, CA 90621
*Garden Grove에서 Buena Park로 사무실 이전하였습니다
info@isemusa.com / taxcapital@gmail.com